

옛날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곳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그만두라고 전해라.”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곳은 힘이 세고 큰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순조롭게 항해하던 그 순간!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했어요.

제비뽑기에 걸린 사람은 요나였어요. 사람들은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어요.

신기하게도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바다 속으로 빠진 요나에게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꿀꺽 삼켜 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였어요.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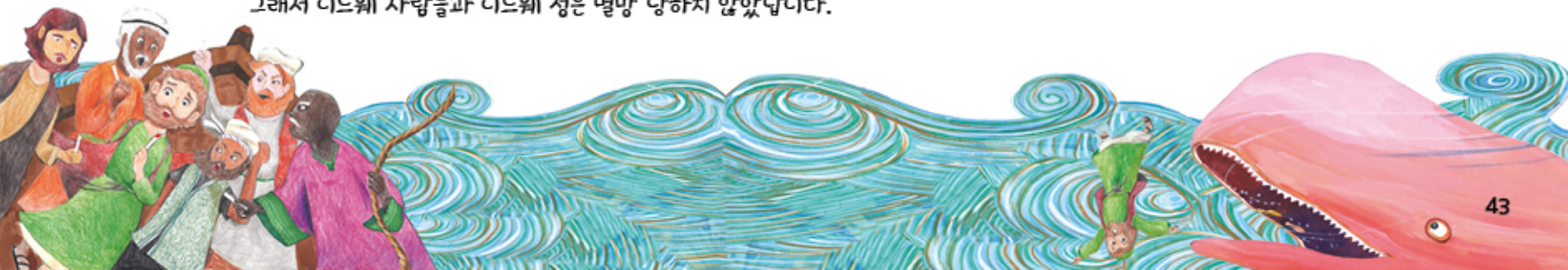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사흘 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내뱉었어요.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는 온종일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성은 멸망 당하지 않았답니다.



활동 1.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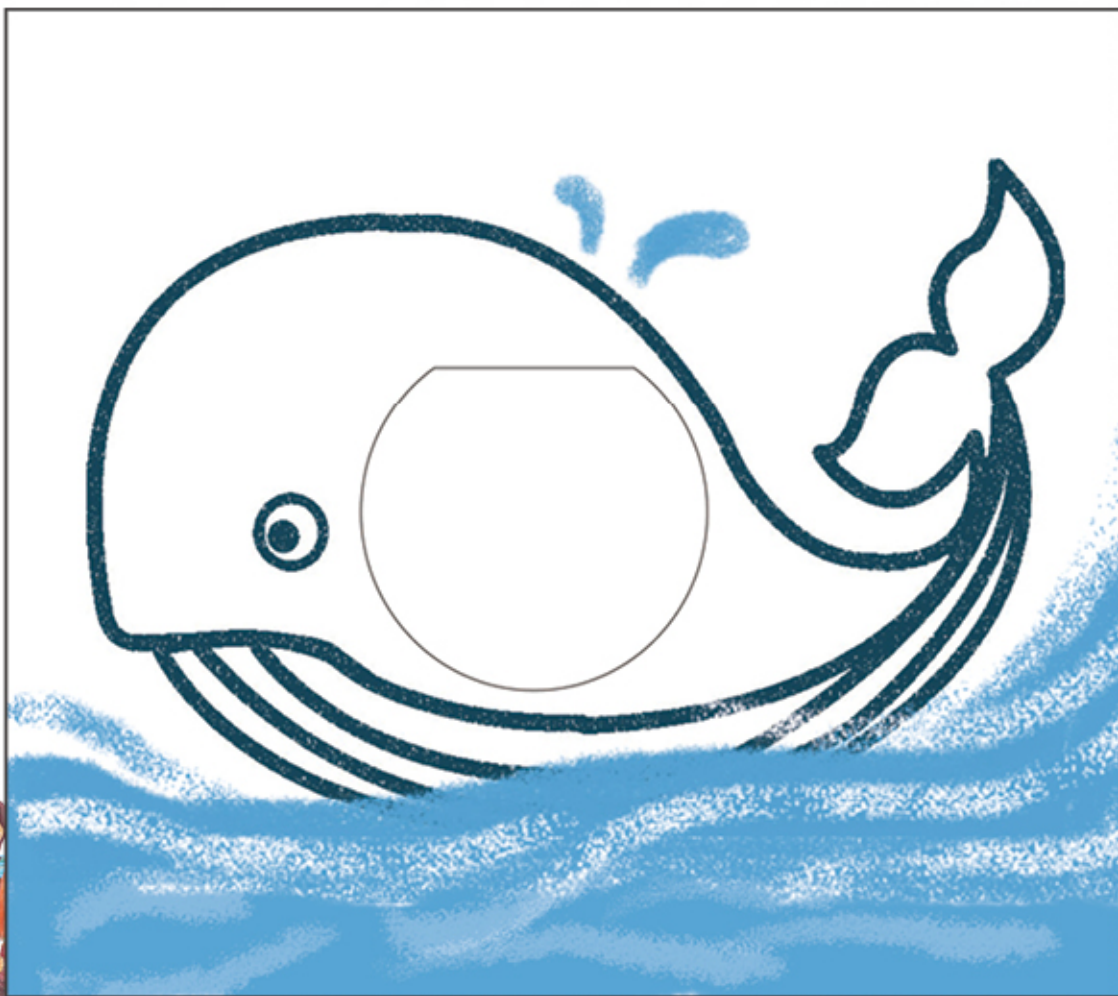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요나 4:11)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활동 2.

요나가 있는 원을 오려서 큰 물고기의 배에 붙여보세요.

준비물: 가위, 풀



완성된 이미지









이름: